



언행일치言行一致

오늘 우리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두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 아들과 ‘아니오’라고 거절했지만 대답과는 달리 실천한 아들이지요. 둘 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표리부동表裏不同의 상태는 같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결과의 중요한 기준이 실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의 신뢰는 잃었지만, 한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얻고 나머지는 마음마저 잃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잘 얻어 가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응답은 했지만 그에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자녀라 할 수 있을까요?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감당해 내야 하는 바가 뒤따를 것이고 내려놓거나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한 바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부탁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더욱 밝히 드러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정성스러워지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9월 한 달, 우리는 순교자 성월을 기도하면서 순교의 영성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순교의 영성이란 하느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마음먹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짊어져야 할 바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비록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을 감당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짊어질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삶을 좀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의 삶은 순교자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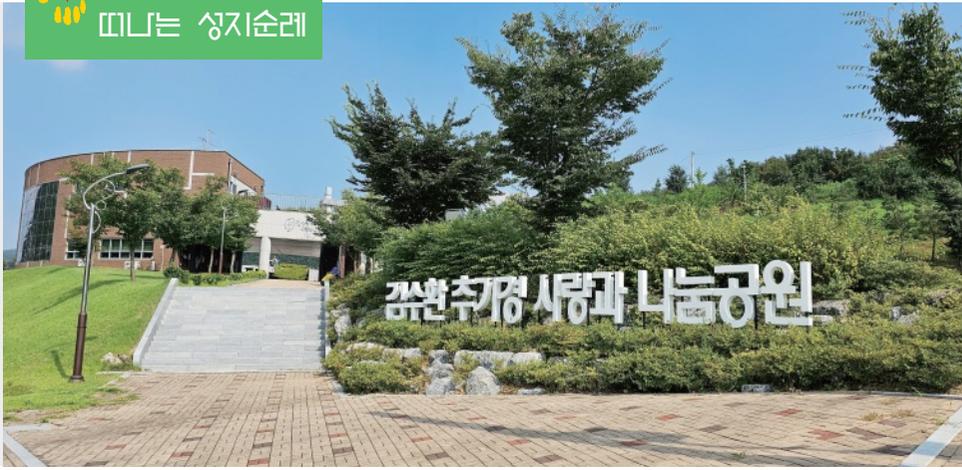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감내하지만, ‘너’를 위해서는 무엇 하나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지 않으려는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을 추구하는 것에 거리낌 없고 당당하고 그것이 미덕인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고 서글퍼지는 것은 왜일까요?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런 세상이 더욱 절망적인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하느님의 나라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속에도 이타적인 생명력이 더해져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해 봅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감당하려는 신앙의 삶을 함께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얻어 가고 우리들의 세상이 하느님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 봅시다.



이우진 요한 신부 | 망경동본당 주임

주일 진레

- 제 1 독 서 에제 18,25-28
- 화 답 송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제 2 독 서 필리 2,1-11 또는 2,1-5
- 복 음 마태 21,28-32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은 한국 가톨릭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계승하고자 추기경의 생가를 중심으로 조성된 공원이다. 특히 공원 내에 위치한 ‘김수환 추기경 기념관’의 전시 공간은 그분의 삶의 여정을 옹기를 빚는 과정과 접목하여 담아내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은 자신의 아호를 옹기라 하고 바보의 자화상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분의 발자취가 전국 곳곳에 있지만 마산교구는 특별한 인연을 담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은 마산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서임되어 성지여중고 교정에서 착좌식을 하고 사목을 하셨으며, 서울 교구장으로 떠나기 전까지 성지여고 주교관에서 사셨다. 성지여고에는 경상남도 문화재인 완월동본당 전신인 성요셉성당이 있다. 성지여고에서는 그분의 현판을 세워 학생들이 한국 현대사의 큰 인물을 보고 자라게 하고 있다.

옹기

민창홍 요한 시인(시, 글, 사진)

햇빛에 빛나는 장독들을 봅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발효된 말씀
그것은 사람을 품고 세상을 품는 효소
너는 커서 신부가 되거라
옹기들의 반짝이는 소리로 곱삭으며
불가마 뜨거움 견디고 세상에 나와
나눌 줄만 알고 받을 줄 모르는
바보입니다
옹기는 바보입니다
흙으로 빚어져 이 땅에 태어나
세상의 일을 하느님의 일을
발효시켜 퍼 나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릇 속에서 삭고 또 삭아서
시대를 초월한 어른이 되고
사랑과 나눔의 징표가 되는 빛이여
옹기에 쏟아지는 빛이여
갈등의 벽 허물고자 몸 바친
한 그루의 큰 나무
그들로 사람들이 모이고
뜨거운 태양 온전히 받아들이는 옹기가
세상의 바보들에게 강론하는
군위 사랑 나눔 공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관





어느 부제님의 이야기

변종원 요셉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지난번에 ‘신학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신도가 아닌 사제직을 준비하며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성근 대건 안드레아 부제님의 ‘신학’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찬미 예수님, 김성근 대건 안드레아 부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 음식 등등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알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나 또한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 한 채로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자칫 맹신의 길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진정한 하느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가기 위해 신학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구원사업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룩하시는지’ 등 하느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느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에 대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느님에 대한 삶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다양한 삶의 체험들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녹아들어 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 이러한 하느님의 체험들은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재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문학적 소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문학적인 글이나 말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신학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면 글이나 말로써 하느님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문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서는 책을 계속해서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으시면서 ‘신학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어려운 신학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재 많은 신학자들의 신학서적들이 있고, 그 신학서적들이 계속해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힘들게 지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운다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신학자들의 신학서적들을 읽는 것과 교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신학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하느님에 대해 알아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그분의 섭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속 하느님을 삶 속에서 고백하고, 체험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교회의 가르침이나 전통적인 교리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언어와 체험으로 풀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을 하는 것이며, 동시에 나의 신앙, 나의 믿음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24

고성지역 교우촌 (1)

경상도 첫 본당은 1885년 12월 설립된 대구본당이다. 두 번째는 부산본당. 1890년 4월 초대 주임 조쥬(Jozeau 趙得夏) 신부가 영도影島의 조내기潮洛里공소에 부임하면서 시작되었고 이듬해 초량草梁으로 옮겼다. 관할구역은 방대하고 넓었다. 동쪽은 언양과 울산까지, 서쪽은 함양, 진주까지. 중앙은 경북 청도에서 거제도까지 이르는 지역이었다.

당연히 진주 쪽 공소들은 본당 신설을 원했다. 공소 회장들은 자금을 마련해 장차 성당으로 사용할 집을 마련한 뒤 뒤편 주교에게 보고했다(1897년). 이듬해 여름에는 신부님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청하는 탄원서歎願書를 제출하기도 했다(1898년 7월).

사정이 이렇게 되자 당시 부산본당 3대 주임이던 타케(Taquet 嚴宅基) 신부는 자신이 진주로 가겠다고 주교에게 알린다. 신설 본당을 자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주본당은 탄생하게 되었고 타케 신부는 부산본당을 떠나 1899년 6월 3일 진주에 부임했다.

진주지역 교우들이 뒤편(Mutel 閔德孝) 주교에게 보낸 1898년 7월 21일 자 탄원서는 남아 있다. 문서에는 공소 회장들의 서명書名이 있다. 양산, 소촌, 삼가, 곤양, 비라실, 원당, 배춘공소다. 그리고 대표는 양산공소 회장 박 요한으로 되어 있다.

그가 대표 자리에 있었던 건 나이가 많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그가 주도를 했을까? 아무튼 양산공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다른 공소는 회장 한 사람의 서명만 있지만 양산공소는 박 요한 회장 외에 세 사람의 서명이 더 있다.

양산陽山공소는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 정황으로 보아 고성군 영오면永吳面에 있었다. 원래 이 지역은 진주군 영이곡면永耳谷面이었고 양산은 여기에 속했다. 그러다 일본이 식민통치를 위해 군면 통폐합을 실시할 때(1914년) 진주군 오읍곡면吾邑谷面과 합쳐 영오면으로 개칭되고 고성군에 편입된다. 영이곡과 오읍곡의 첫 글자를 따서 명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양산지역은 1914년 이전엔 진주에 속했던 땅이다. 지금의 고성군 영오면 양산리는 진주시 진성면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문산읍에서 고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훗날 고성읍과 통영의 공소 교우들이 문산(소촌)본당으로 나올 때 그들이 일박一泊 하면서 묵을 수 있었던 교우촌이 양산공소였던 것이다.

고성에는 병인박해 이전부터 교우들이 살고 있었다. 치명일기에 의하면 파리외방선교회 리델(Ridel 李福明) 신부는 병인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에 순교복자 구한선(타대오)을 복사로 대동해 거제도를 사목 방문한 적이 있다. 거제도에 교우들이 있었다면 고성과 통영에도 교우들은 분명 있었다. 그들의 도움 없이는 거제도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리델 신부는 1861년 조선에 입국했다. 당시 31살의 프랑스인 선교 사제였다. 입국할 때 그는 전국의 교우촌이 표기된 지도를 갖고 있었다. 지도에 등장하는 교우촌은 153개였고 서부경남은 8곳이었다.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남해, 진주, 칠원(창원 구산면), 의령(신반)이다.

1861년이면 병인박해 5년 전이다. 기록보다 훨씬 앞서 고성엔 교우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남해, 창원, 구산면은 바닷가로 연결되는 라인이다. 어떻게 이곳에 교우촌이 형성되었을까? 뿌리는 호남에서 시작된 정해박해(1827년)를 피해 온 교우들이다.

전북 장수에서 함양으로 건너온 피난 교우들은 문산, 고성, 통영을 거쳐 바닷가로 내려갔고 일부는 산청을 통과해 곤양과 남해 쪽으로 흩어졌다. 당시는 먹을 것이 귀한 때였다. 흉년이 겹치면 예사로 굶어죽었다. 그러나 바닷가는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여자들도 쉽게 일할 수 있었고 신분의 규제도 느슨했다. 피난 교우들이 정착하기 좋은 조건이었던 것이다.

거리두기

김진희 세레나 시조시인/ 가톨릭문인회

거리두기란 브레히트가 자신의 연극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과 거리를 두어 비판적인 시선을 갖게 하는 전략적 언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년이 지나서야 일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지난여름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몇 배로 꺾여 다시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은 물론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도 볼 수 있다.

나무도 생명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한다고 한다. 뾰족한 열대 우림 속에서도 같은 종의 나무들끼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같은 종끼리 가까이 있는 경우 천적에 의해 절멸할 가능성이 크므로 나무 주변에 다른 종의 나무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같은 종끼리는 거리두기를 해 숲을 다양하게 만든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서 거리두기는 필요하지만 가깝지도 않은,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기란 어렵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그 간격을 잘 유지하지 못해 금이 가기도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을 보게 된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미쳐야 성공을 맛볼 수 있기도 하다. '미쳐야 미친다'고 시, 그림, 음악, 운동에 미치기도 하고 또 사랑에 한없이 빠지기도 한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두어라." 1997년 경남신문 신춘문에 시조로 당선되어서 시인이 되었다고 하니 엄마가 하신 말씀이다. 그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씨익 웃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딘가에 꽂히면 깊이 빠져드는 성격에 엄마는 무언가 또 일을 저지른 딸이 마냥 걱정스럽기만 한 것이다.

중학교 입학하면서 선배를 따라 간 교회는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 학교와 집은 나의 성장 단계에서 그저 필요한 것이고 내 정신세계는 하느님 말씀이 절대적이었다. 성경은 숭배해야 할 진리로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마음속 깊이 와닿았다. 좁은 길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교회를 (학교에서는 사 이비라고 함) 부모님은 물론 선생님, 친구들의 눈을 피해 몰래 숨어서 다녔다. 공부, 친구, 부모님과는 거리를 두었다. 오직 마음속에는 하느님뿐이었다. 중3이 되면서 고교 입시를 앞두고 교회를 빠져나왔을 때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오랜 가슴앓이 끝에 서른 중반이 되어서야 남편의 권유로 성당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힘들게 시작한 미사 참례는 차츰 나를 치유하고 마음의 평화를 주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오리다."

그러나 지금도 나는 성당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할 때가 많다. 거리를 지우고 친밀하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믿음을 주십사 간절히 청한다.

남성동본당 '성실하신 정녀 Pr.' 2,500차 '자비의 어머니 Pr.' 2,000차 기념 주회



남성동본당(주임: 정홍식 마르코 신부) '성실하신 정녀 Pr.'(단장: 김정수 베네딕타) 단원들과 '자비의 어머니 Pr.'(단장: 이명선 안나) 단원들은 9월 13일 2,500차와 2,000차 합동 기념 주회를 가졌다. 성실하신 정녀 Pr.은 1974년 1월 5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6명의 여성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자비의 어머니 Pr.은 1984년 4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6명의 여성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합동 기념 주회에는 본당 사제를 비롯한 역대 단장들과 본당 레지오 단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와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



기억할 선종 사제
김해동(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
1975년 10월 6일

교구/본당

제7차 본당양업22 실습 교육

일시: 10월 5일(목) 10:00
장소: 교구청

신앙대학

일시: 10월 7일(토)~8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제16기 어머니학교

일시: 10월 7일(토)~8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예비신학생·여학생 예비성소 모임

일시: 10월 8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문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안보연(바울라)
담당판사: 여인석(베드로) 신부
장소: 교구 법원
일시: 10월 4일(수)까지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위원회/기관/단체

220차 ME주말 안내

일시: 11월 17일(금) 19:00~19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접수(문자발송-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울리나) 010·4598·7530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공동체미사 시간 변경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창원이주민센터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7:3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정규직) 채용

모집: 사무직(번역: 0명, 행정 사무 등: 0명)

제출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참조
접수: 10월 20일(금) 14:00까지 서류함께 제출
(전화 문의 사절)

E-메일 문의: mano@cbck.kr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들 목장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일시: 10월 20일~22일/ 10월 24일~26일/ 10월 29일~31일/ 11월
3일~5일/ 11월 7일~9일/ 11월 11일~13일/ 11월 17일~19일
연말연사: 12월 30일~2024년 1월 2일(해넘이, 해돋이, 눈꽃산행)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문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10월 29일~31일/ 11월 16일~18일/ 11월 21일~23일/
11월 26일~28일/ 12월 1일~3일/ 12월 9일~11일/ 12월 15일~17일
연말연사: 12월 29일~2024년 1월 1일(해넘이, 해돋이, 눈꽃산행)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11월 4일(토)~5일(주일)
12월 16일(토)~17일(주일)
3박 4일- 10월 26일(목)~29일(주일)
11월 16일(목)~19일(주일)
8박 9일- 11월 22일(수)~30일(목)
12월 26일(화)~2024년 1월 3일(수)
40일- 12월 19일(화)~2024년 1월 27일(토)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 구	10월 2일(월) 19:00	중앙동성당	회개	표중관 베드로 신부(부산교구)		010·5247·9900
청 년	매주(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상사-문의 바람		010·6608·3217	-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 연락)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김 토마스 수녀)	인스타그램에 한국외방선교수녀회를 검색하세요.

<p>가톨릭 트래블</p> <p>11/7 제주 올레길 25일 259만원(식사 미포함) 24년 4/7 산티아고 순례길 42일 549만원(+1,900유로)</p> <p>070-4086-0207 catravel.co.kr</p>	<p>천차만차</p> <p>대동모터스 매매 31호</p> <p>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p> <p>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p>트래피스트 수녀원</p> <p>100% 유기농 잼</p>  <p>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p> <p>·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p>	<p>대성익전 경남장묘컨설팅</p> <p>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010-4848-9944</p> <p>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중운(클레멘스)</p> <hr/> <p>가톨릭 우리농 직매장</p> <p>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아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p>
---	--	---	--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25

이영미 켄마(부산교구 성가정성당)

저는 부산교구 신자입니다.

오래전 주님 안에서 명례성지 봉사자로 만났던 고운 인연 6명이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드디어 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내리는 은총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첫 발을 내밀었습니다.

계획상 코스는 웅천-장방-대산-성심원공소였는데 또다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니 대산에서 의기투합하여 장암-구읍공소까지 순례를 강행하였습니다.

창원 남산터미널에서 만나 웅천으로, 신석복 마르코 순교자가 소금장수할 때 웅천장을 이용했기에 명례성지 이제민 신부님이랑 웅천공소를 갔던 기억들을 모두들 떠올리며, 기분 좋게 공소에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첫 순례지인데 어떡하지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고 담을 뛰어넘어야 하나? 걱정하던 중, 공소 담당하시는 분이 처음에 받지 않던 전화를 2번째는 받았습니다. 무사히 공소에 들어가 준비된 기도를 바쳤고 오늘 순례가 주님 뜻 안에서 잘 이어지길 기도하였습니다.

7월의 신록에 감탄하면서 장방공소에 도착하니 벽면에 사진이 많이 걸려있었습니다. 저는 1986년 12월 23일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때 세례를 주신 정중규 신부님을 벽면의 사진 속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신부님의 모습을 뵈게 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신부님을 위해 그 자리에서 화살기도를 바쳤습니다.

2009년부터 명례성지를 오가며 무수히 봤던 대산공소 표지판, 그러나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으니 이 책자만 없었다면 영원히 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스탬프를 찍는 도장 옆에 공소 신자들이 담아놓은 사탕 그릇이 성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참 따뜻하고 이뻐했습니다. 창원성심원공소에 도착, 이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공지를 보고 준비해 갔는데도 텅다는 이유로 목에 걸었으니 이기적인 내 마음... 배려가 부족했던 나, 주님은 그래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부산 성가정본당에서 은퇴하신 황태웅 요셉 신부님이 계시는 장암공소, 처음엔 4곳만 순례하고 빨리 부산에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 장암공소를 뜻하지 않게 순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어찌 계획대로만 되었던가?' 공소에 차를 주차하는데 신부님께서 발에 가시려고 나오셨습니다. 뒤따라온 일행들도 신부님께 인사드리고, 시원한 물 한잔 줄 테니 사제관에 가자고 하셔서 신부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발에 나가 키우는 작물도 구경하고 꺾어도 따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 신부님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친정아버지 같으신 요셉 신부님, 본당에 계시실 때보다 더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은 편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인사드리고 마지막 순례지 구읍공소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례지라 생각하니 구읍공소에서 기도 소리는 더 크게 하였습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따르며 살았던 공소 신자들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소 앞 예쁜 카페에서 시원한 차를 마시며, 오늘 순례의 해단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발걸음 발걸음마다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뜻밖의 초대

이명선 안나(남성동본당)

거슬러보니 1994년 5월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교정 후원자로 시작하였는데 교정 봉사자와 후원자들을 위한 성지순례를 가자는 본당 간사님의 권유를 받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성지 참배 후 각 본당 후원자들과 친목을 다지며 점심을 맛있게 먹는 중, 갑자기 본당 간사님께서 꽃다발을 제게 내미셨습니다. 꽃에 반해 눈치 없이 웬 떡이냐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았습니다. 순간! 수녀님과 간사님께서 저에게 지금부터 본당 간사라고 소개하시며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수녀님의 설득으로 저는 본당 간사가 되었고 교정사목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정시설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는 그 안의 형제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고 불편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내 형제, 평범한 이웃 아저씨 같은 느낌이 확 와닿았습니다. 그 뒤론 먼저 손을 내밀고 웃어주며, 기도하겠다고 이름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도 경계를 풀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만나는 이웃이 되어 혹 안 보이면 어디가 아픈가, 출소라도 했나? 궁금하고 그들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교정의 연중행사인 단체 가족 면회 행사에 가족이 없는 5명의 가족이 되어 면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5명의 아들을 소풍 보내는 마음으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갔습니다. 교정시설 마당과 강당에서 각자 가족들과 모인 자리에 그들을 맞아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 것 같다고 기쁨을 연신 표현하는 그들의 모습에 어미 같은 마음이 들어 가슴이 찡했습니다. 부활과 성탄에는 교정사목후원회에서 그곳 형제들을 위하여 선물 꾸러미를 만들고 그 안에 축하 메시지도 넣어 들여보내는데, 그 선물과 메시지에 너무 기뻐했다는 말을 전해 들을 때면 더욱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이 보내온 편지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진정 가족애를 느껴보는 감격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자선을 베풀며 살았느냐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우주 공간보다 크다는 것을 다시금 새겼습니다. 그 아름다운 감사를 얘기하자면 편지지 한 권을 써도 다 못쓰겠지요. 그런 사랑을 먹고 사는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을 ... 세상에 전염 시켜야겠지요.”

“매주 오셔서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 봉사자분들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 저희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손을 내미시는 봉사자분들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뵙습니다.”

또 출소하여 지인의 소개로 목공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욕심부리지 않고 봉사자들처럼 봉사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겠다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감사를 받기에 너무 부끄러운 저의 모습입니다. 봉사자들과 저의 작은 마음, 그리고 노력들이 절실한 우리 형제들을 위한 사랑의 씨앗이 되었다는 점은 너무나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이제 이곳 형제들과 함께한 시간도 30년이 다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들이 주님의 은총 속에서 잘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담 안으로 발길을 옮겨 봅니다.

■ **교정사목 후원계좌 안내**

○마산·창원·거제지구 교정사목후원

▶계좌: 하나 160-890023-35604, 농협 849-01-309873, 경남 593-07-0021495

○진주지구 교정사목후원

▶계좌: 하나 160-890025-22604, 농협 301-0041-1371-31, 우체국 613448-01-001528

●예금주: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교정사목 사무실 055·249·7043

